

唐 武則天 時期 李敬業 亂의 展開過程과 軍事活動

李 相 勳
(경북대학교)

1. 머리 말
2. 李敬業 亂의 勃發 背景
3. 叛亂軍과 鎮壓軍의 戰力比較
4. 鎮壓軍의 遊牧騎兵 編入
5. 叛亂軍의 騎兵防禦 戰術
6. 叛亂軍의 兵站線 攻擊
7. 맺 음 말

1. 머리 말

683년 당 고종의 사망과 중종의 폐위 그리고 무척천의 섭정이 이어지고, 680년대의 자연재해와 잇따른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당왕조는 안팎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된다. 684년이 되자 좌천당한 관료세력과 강남인들을 규합

하여 이경업이 양주(楊州)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반란군은 30만명 이상의 진압군에게 차례차례 격파당하고, 반란군 수뇌부는 도주 중 부하의 손에 피살당하여 50여 일간의 반란은 막을 내리게 된다. 많은 황제들이 정당하고 순탄하게 등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반란을 진압하는데 시간을 허비해야 했지만, 무측천은 단 3개월 만에 드러난 모든 반대를 없애버렸다.¹⁾

무측천이 이경업의 무장반란을 평정한 사실은 통치계급 내부의 반대세력에 대해 무측천이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나타내고, 난의 조기 진압은 무측천을 크게 고무시켰으며, 조신(朝臣)과 일반 백성들에게 위엄을 보여주었다.²⁾ 이경업의 난이 신속히 평정되지 않았다면, 1세기 전 남북조 분열국면³⁾으로 돌아가 역사가 단절되어 성당(盛唐)경제의 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했을 것⁴⁾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렇듯 이경업의 난은 당시 혼란하고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 주었으며, 무측천에게 있어서는 군사상 최대의 반발이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업의 난 자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⁶⁾ 다만 반란군의 잘못된 전략과 이경업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 난이 실패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1) C. P. Fitzgerald, *The Empress Wu*, The Cresset Press, 1968, 108쪽.

2) 何磊, 『武則天傳』, 云南師範大學出版社, 1992, 83쪽.

3) 任大熙는 亂의 진격방향이 常州·潤州였던 점에서 江南을 중심으로 한 독립정권 수립이 그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唐朝가 중국을 통일한 지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분리적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任大熙, 『則天皇后 執政時期的 政治와 人物』, 『魏晉隋唐史研究』 第2輯, 1996, 165쪽).

4) 胡戟, 『武則天本傳』, 三秦出版社, 1986, 71쪽; 何磊, 앞의 책, 71쪽.

5) 胡戟, 앞의 책, 70쪽; 垂拱 4년(688) 7월 낭야왕 李冲은 5,000명으로 거병하였으나 일주일도 안되어 진압당했으며, 8월 월왕 李貞이 거병하여 7,000명을 얻었으나 한달도 되지 않아 10만명의 진압군에게 평정되었다.

6) 李敬業의 祖父인 李勣에 관한 논문은 수편 있으나(強櫻花, 『李勣與高·武政局』, 『武則天研究論文集』, 山西古籍出版社, 1998; 寧志新, 『李勣與武則天』, 『武則天與嵩山』, 中華書局, 2002), 李敬業에 관한 전문은 전무하기 때문에 단지 武則天 시기를 다루는 論著에서 李敬業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외산군치(外山軍治)는 양주에서 거병한 이상 곧장 낙양으로 향하는 것이 전략의 상책이며, 금릉(金陵, 남경)을 취하는 것은 결전을 피하고 천하의 인심에 호소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안일한 생각이라고 보았다.⁷⁾ 택전서수(澤田瑞穗)도 이에 동조하며 반란군은 애초부터 전략을 잘못 세웠다고 비판했다.⁸⁾ 한편 Guisso는 반란이 실패한 원인을 무측천의 대사면 정책⁹⁾과 이경업의 지휘관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언급했다.¹⁰⁾ 레이 황도 이경업은 성격이 매우 급하며 당조에 충성할 마음이 별로 없었다고 보았다.¹¹⁾ 유만춘(劉曼春)은 이경업과 그 수뇌부는 병력 운용과 작전경험이 관군과 대적할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¹²⁾ 조문윤(趙文潤)도 이경업은 총명하나 고집불통이라서 부하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았으며, 반란군의 소수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¹³⁾ 반면 호극(胡戟)은 무측천이 신속히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점 두 가지를 제시했다. 반란군 10만명에 대해 30만명이라는 대군을 투입하고서도 흑치상지(黑齒常之)가 이끄는 예비대를 추가 파병한 점과 민심이 분열할거적인 이경업의 난을 지지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¹⁴⁾

-
- 7) 外山軍治, 『則天武后』, 中央公論新社, [1966] 1999, 102-103쪽. 낙양을 공격해야만 거병 명분을 얻을 수 있는데, 王氣가 있다고 하여 金陵으로 향한 이상 이것은 완전히 반란이라고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 8) 澤田瑞穗 著, 정성환 譯, 「측천무후」, 『인물로 보는 중국역사』 3권, 신원문화사, 1994, 201쪽.
- 9) 武則天은 楊州·楚州의 반란군에 가담한 자들의 죄를 묻지 않고, 李敬業의 머리를 바치는 자는 3品 관직과 비단 5천匹을 하사한다는 사면령을 내렸다(趙文潤·王雙懷, 『武則天評傳』, 三秦出版社, 2000, 154쪽).
- 10) Richard W. L. Guisso, 'The reigns of the empress Wu, Chung-tsung and Juitsung'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Cambridge Univ press, 1979, 296쪽.
- 11) 레이 황 著, 권중달 譯,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 푸른역사, 2001, 255쪽.
- 12) 劉曼春·梁恒唐, 『大周女皇武則天』, 山西古籍出版社, 1997, 112쪽.
- 13) 趙文潤·王雙懷, 앞의 책, 155쪽.
- 14) 胡戟, 앞의 책, 70쪽.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반란군이 곧장 낙양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둥(山東)의 반당적 세력과 연계하지 못하여 세력확장을 할 수 없었으며, 차후 금릉을 수도로 삼아 독립정권 수립을 추구했기 때문에 거병명분을 상실하여 민심을 얻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경업 자신은 지휘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며 용병술이 진압군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에 난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분명 이경업은 세력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못했고, 병력을 집중하지 않고 분산배치하여 각개격파당하였으며, 결국 하아계(下阿谿)에서 패한 후 도주 중 부하의 손에 피살당하였다. 또한 거병초기 윤주자사(潤州刺史)였던 숙부 이사문(李思文)도 이경업의 행동을 반대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경업은 지휘관으로서의 자질과 용병에 있어서 큰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반란군이 낙양으로 곧장 진군하면 대의명분을 얻게되며, 또한 산둥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세력 확장이 보다 수월했을 것인데, 왜 북진하지 않고 남진하여 할거를 도모하려 했는가이다. 왜 남진하였는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전 연구자들이 이경업이 금릉을 수도로 삼아 독립정권을 수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지만, 북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금릉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사실 자체가 벌써 반역이며 중중 복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경업은 중중 복위를 명분으로 개인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금릉을 수도로 삼아 독립하려는 반역자로서 인식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당시 이경업 난의 전개과정 속에서 실제 반란군이 왜 북진하지 않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에 먼저 난의 발발 배경을 살펴보고, 반란군과 진압군의 전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어 진압군의 유목기병 편입을 통한 전력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반란군의 기병방어 전술과 병참선 공격을 다루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경업의 난 당시 시대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며,¹⁵⁾ 나아가 이경업

의 용병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2. 李敬業 亂의 勃發 背景

683년 12월 당 고종이 사망하자 중종이 그 뒤를 이었다. 중종이 제위에 올라 우선 행한 것은 위항후의 아버지인 위현정(韋玄貞)을 시중으로 삼은 것이었다. 이 일로 인해 무측천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채 2개월도 되기 전에 무측천에 의해 폐위당하였다. 이어 무측천의 또다른 아들인 예종(睿宗)이 684년 2월 즉위하기에 이른다. 예종은 실제 정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무측천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 무측천은 자신의 일족인 무승사(武承嗣)를 재상으로 삼고, 무씨 칠묘(七廟)를 세워 묘제를 황제에 버금가게 하였으며, 낙양을 신도(神都)라고 이름 붙여 실질적인 수도로 삼았다. 또한 관직명을 임의로 바꾸었으며, 수백명의 귀족과 황족들을 좌천시키거나 귀양을 보냈다.¹⁶⁾ 이에 정적(政敵)들은 중종의 폐위와 예종의 나약함 그리고 무측천의 섭정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¹⁷⁾

한편 고종 사망 후 돌궐과 토번을 비롯한 이민족의 침입이 격화되고, 680년대에 지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민심은 동요되고 있었으며, 잦은 원정으로 인한 당왕조의 재정상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¹⁸⁾ 고종 현경(顯慶)

15) 전쟁은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인간 생활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쟁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Votaw, An "Approach", in Jessup & Coakley, (ed), *A Guide*, 41쪽; Higham, *A Guide to the Sources of U.S. Military History*, 36쪽; 허중권, 「韓國 古代 戰爭史 研究方法論」, 『軍史』 第42號, 2001, 234쪽에서 再引用).

16) Jacques Gernet, *A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Cambridge Univ press, 1982, 257쪽.

17) 趙文潤·王雙懷, 앞의 책, 138쪽.

18) Denis Twitchett and Howard J. Wechsler, 'Kao-tsung and the empress Wu'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Cambridge Univ press, 1979, 278쪽.

연간(660) 이후 백제·고구려를 침공하면서 막대한 전비 지출과 함께 훈관(勳官)이 대량 발생했고, 곧이어 토변과 돌궐의 침입으로 인해 군비 증가와 함께 대량의 병량운반역(兵糧運搬役)이 동원되었다. 그런데 훈관이나 운량역(運糧役)에 동원된 자들에게는 조용조(租庸調)를 면제해야 했으므로 고종후반기부터는 재정확대 요인과 재정결손 요인이 한꺼번에 발생함으로써 재정위기에 처해졌고,¹⁹⁾ 한편으로 돌궐과 토변의 침입은 지속되었다.²⁰⁾ 게다가 680년대의 자연재해로 하·남북(河·南北)과 산동일대가 피해를 겪으며, 이에 따라 재정위기는 극에 달했다.²¹⁾ 이러한 재정결손은 고스란히 강남의 몫으로 남게 되었고, 여기에 부패관료들의 착취²²⁾로 인해 강남의 세금부담은 막중한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684년 9월 이경업이 좌천당한 구 관료출신자들을 규합하여 양주에서 거병하였던 것이다. 이경업의 동생 이경유(李敬酉)는 이경업과 연좌되어 주지현령(周至縣令)에서 파면당했고, 급사중(給事中) 당지기(唐之奇)는 괘창현령(括蒼縣令)으로 좌천당했으며, 첨사부사직(詹事府司直) 두구인(杜求仁)은 이현령(黟縣令)으로 좌천되었다. 여기에 장안주부(長安主簿)였던 낙빈왕(駱賓王)과 주지현위(周至縣尉)였던 위사온(魏思溫) 등이 합류하여 양주에서 거병을 모의하게 되었던 것이다.²³⁾ 이경업은 당초기의 전쟁공신이며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적(李勣)의 손자로서, 영국공(英國公) 작위를 물려받았으며 미주자사(眉州刺史)로 재직 중에 유주사마(柳州司馬)로 좌천당했다. 반란군은 당시 감찰어사였던 설중장(薛仲璋)을 이용하여 양주장사(楊州長史) 진경지(陳敬之)를 체포·살해하고 양주를 점령하였다. 중종복위를 명분으로 삼부(三府)를 개설하고,²⁴⁾ 무축천을 토벌

19) 金鐸敏, 『中國土地經濟史研究』, 高麗大學校出版部, 1998, 362쪽.

20) 『資治通鑑』卷203, 永淳元年條, 弘道元年(683)條, 光宅元年(684)條 참조.

21) Denis Twitchett and Howard J. Wechsler, 앞의 책, 278쪽.

22) 金鐸敏, 『北朝 隋 唐前期 租調役(庸)制 研究』, 高麗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1, 283-284쪽 참조.

23) 『資治通鑑』卷203, 光宅元年 九月條.

한다는 격문²⁵⁾을 각주(各州)에 발송하여 거병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했다. 구 관료 세력을 포섭하고 민심이반이 이루어지던 강남 백성들을 아우르는 반란군의 전략은 주효해서, 그들의 세력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²⁶⁾ 지금의 강소성 일대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그런데 반란군은 곧바로 동도(東都, 낙양)로 진출하지 않고, 금릉을 수도로 삼아 독립정권을 수립하고자 윤주(潤州)를 공략했다. 이들이 남진하여 할거하기로 결정한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반란군이 북진한다면 초주(楚州)에서 변하(卞河)를 통해 낙양까지 약 1,700리²⁷⁾를 이동해야 하는데, 병사들이 병참물자를 직접 휴대하거나 수레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이다. 따라서 북진한다면 부대이동과 병참지원이 대운하를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하루 이동거리가 50리 이내였던 점²⁸⁾을 감안하면 한 달 이상 소요되어야 낙양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대운하는 수심이 얕고 모래가 많아 첨저선(尖底船)보다는 평저선(平底船)이 폭넓게 활용되었기 때문에,²⁹⁾ 조운선(漕運船)과 같은 일반 중·소형선박을 활용해야만 했다. 전선(戰船)이 아닌 일반 수송선을 이용하여 통제되지 않은 적대적인 대운하를 따라, 그것도 기병의 호위없이 1,700리를

24) 『舊唐書』卷67, 「李勣傳」.

25) 『大李敬業傳檄天下文』. 駱賓王이 직접 작성한 문장으로 말은 간결하나 뜻은 완벽해서 인구에 회자되었고, 강한 선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적으로도 격이 높다고 한다(趙文潤·王雙懷, 앞의 책, 148쪽).

26) 『舊唐書』卷67, 「李勣傳」, “旬日之間, 勝兵有十餘萬”.

27) 長安과 洛陽의 거리는 800리, 洛陽과 卞州(開封)의 거리는 420리, 卞州와 盱眙의 거리는 1,050리, 盱眙와 楚州의 거리는 220리이므로(劉希爲, 『隋唐交通』, 新文豐出版公司, 1992, 68-70쪽 참조) 楚州에서 낙양까지의 거리는 약 1,700리 거리가 된다.

28) 北進은 海上이 아니라 內陸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시에는 황하가 하루 30리, 장강이 40리, 나머지 하천이 45리이고, 기병이 절대부족한 반란군이 도보 및 나귀로 행군시에는 하루 50리를 갈 수 있었다(『唐六典』卷3, “凡陸行之程: 馬日七十里, 步及驢五十里, 車三十里. 水行之程: 舟之重者, 沂河日三十里, 江四十里, 餘水四十五里”).

29) 金在瑾, 『우리 배의 歷史』, 서울대학출판부, 1989, 46쪽.

한 달 이상 이동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일이었다.³⁰⁾

한편 반란군의 위사온이 강력히 세력연계를 주장하던 산동일대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³¹⁾ 또한 반란군이 목표한 낙양의 경우 경제적 중심지일 뿐 아니라 산동·하북을 제어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강남 지배를 위한 중요거점이었다.³²⁾ 물론 낙양일대의 부대가 소집·정비되기 전에 기습공격한다면 승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윤주자사 이사문(李思文)이 이미 거병소식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³³⁾ 무측천은 여유를 가지고 대비할 수 있었다.

남진할거를 주장한 설중장은 전직 감찰어사로서 품계는 정8품하에 해당했으며, 조정과 지방에 관여하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³⁴⁾ 당시 재상이었던 배염(裴炎)과는 외생(外甥) 관계에 있었으며, 정·관계에 상당한 안목과 통찰력을 구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진을 주장하던 위사온³⁵⁾보다 현실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반란군이 재상 배염과 접촉한 점,³⁶⁾ 좌천되지 않았던 설중장의 참여 유도를 한 점 등으로 볼

30) 양투안 양리 조미니 著, 이내주 譯, 『전쟁술』, 책세상, 1999, 175쪽 참조.

31) 『資治通鑑』 卷203, 垂拱二年 三月條, “揚州構逆, 殆有五旬, 而海內晏然, 纖塵不動”.

32) 高敏, 「關於隋煬帝遷都洛陽的原因」, 『魏晉隋唐史論集』 第2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264-265쪽; 崔宰榮, 「唐 前期 三府의 정책과 그 성격」-唐朝의 京畿強化策과 관련하여-, 『東洋史學研究』 第77輯, 2002, 59쪽에서 再引用; 또한 당시 수도의 상시 경비인원은 10만명이었으며, 내향한 유목군대도 인접해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동원가능한 부병의 분포가 관내도·하동도·하남도를 합치면 80%가 넘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95%가 북중국에 편재해 있다(金羨珉, 『出土文書를 통해 본 唐代的 府兵』,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4, 13쪽).

33) 李思文은 李敬業의 숙부였지만 李敬業의 거병에 반대했고, 거병 모의를 알고 미리 거병소식을 보고했었다(『資治通鑑』 卷203, 光宅元年 九月條, “思文敬業之叔也, 知敬業之謀, 先遣使間道上變”).

34) 『新唐書』 卷48, 「百官志」 3.

35) 전직 주지현의 현위로서 도적을 체포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지방민 중에 선출된 자에 불과했다(張國劉, 『唐代官制』, 三秦出版社, 1987, 120쪽).

36) 반란군인 駱賓王과 현직 고위관료인 程務挺은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駱賓王은 程務挺을 먼저 찾았고, 그를 통해 재상 裴炎과 연락을 취했다(趙文潤·王雙樞, 앞의 책, 144쪽 ①)

때 낙양에 지속적인 정보망을 보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반란군이 당시 수도의 움직임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란군이 처음부터 북진론을 거부했는지도 의문시된다. 북진의 이점을 이경업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반란 초기 세력 확장 방향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었으며, 실제로 우이(盱眙)에서 교전이 벌어진다. 우이는 변하(卞河)를 통해 낙양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변하의 남쪽 관문이었다. 종합해 볼 때 이경업은 북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남쪽으로 진군하여 세력확장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높다.

갈검웅(葛劍雄)이 중국의 전국적인 정치중심은 경제중심과 비록 분리될 수 있으나, 지역적 정치중심과 경제중심은 오히려 대부분 합쳐져 있으며, 일단 전쟁이 발생하거나 중앙정부가 전국을 통제할 힘이 없을 때는 이 같은 중심도시를 장악하는 자가 있기만 하면 곧 하나의 독립왕국을 건립할 수 있다³⁷⁾고 한 점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Fitzgerald는 이경업의 난이 남조의 수도였던 남경(금릉)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조가 창업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한다.³⁸⁾ 난 당시 정국은 국내외적으로 혼란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반란군은 강남지역을 난의 최적지로 선택하고 강남할거를 준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叛亂軍과 鎮壓軍의 戰力比較

전력은 전쟁을 수행할 목적과 기능을 갖는 조직적인 무력 또는 군사력을 말한다. 전력은 군대가 갖는 직접적인 전투력³⁹⁾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병

각주 참조).

37) 葛劍雄 著, 淑史研究會 譯, 『中國統一·中國分裂』, 신서원, 1996, 157쪽.

38) C. P. Fitzgerald, *The Empress Wu*, The Cresset Press, London 1968, 101-102쪽 참조.

원(兵員)·장비의 유형적 요소와 전의·사기·군기·훈련 등의 무형적 요소가 합쳐진 즉 수량적 요소에 질적 요소가 통합된 개념이다.⁴⁰⁾ 여기서는 먼저 반란군과 진압군의 전력을 비교하여 그 경향성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반란군의 총 병력은 10만명이며, 대부분은 훈련받지 못한 신병들로 구성되었다.⁴¹⁾ 반란군이 장악한 양주의 강평부(江平府)·신림부(新林府)·방산부(方山府)·한강부(邗江府) 4부와 초주(楚州)의 회음부(淮陰府) 그리고 윤주(潤州)의 금산부(金山府) 등 총 6곳의 부가 있었으며,⁴²⁾ 정원증가 이전의 1부 평균인원은 800명 정도이므로⁴³⁾ 이들 부병의 총 인원은 4,800명가량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도 상번(上番)과 번진(藩鎭)에 충원된 인원은 거의 없을 테지만⁴⁴⁾ 關(관)이나 津(진)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었으므로, 반란 동원에 가능한 부병의 총인원은 이보다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양주에 대도독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중심지로서 지방경비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반란군 총 10만명 중에서 실제 군사훈련을 받은 인원은 1/10도 채 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병력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병종(兵種)이며, 병종은 크게 기병과 보병으로 구분된다. 당전기에는 기병의 규모가 남북조시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주요 전투역량으로서 매우 중시되었다.⁴⁵⁾ 훈련된 기병⁴⁶⁾은 그 신속성과

39) 전투력은 전장에서 기동전과 전투에 직접적으로 운용되는 실질적인 무력으로서, 지휘관이 가용한 물질적인 수단과 그 부대 정신력이 결합한 결합체를 총칭한다(河大惠, 『軍事戰略學』, 을지서적, 1998, 51쪽).

40) 金光石 編, 『用兵述語研究』, 兵學社, 1998, 459쪽.

41) 『新唐書』 卷93, 「李勣傳」, “且言奉密詔募兵, 討高州叛僞”.

42) 張沛 編, 『唐折衝府匯考』, 三秦出版社, 2003, 248-253쪽.

43) 菊池英夫 著, 김선민 譯, 「부병제도의 전개」, 『세미나 수당오대史』, 서경, 2005, 243쪽.

44) 수도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절충부에서는 금전으로 番上을 대신하여 면제받을 수도 있었으며, 그 금액은 약 2-3천(錢)이 요구되었다(國防軍事研究所, 『中國軍事制度史』, 1998, 139쪽). 수도와 거리상 멀고 부유한 양주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番上을 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45) 張北·田禾·康誠·袁俊宏, 『軍馬』, 解放軍出版社, 2004, 64쪽.

46) 徐榮教, 「張保阜의 騎兵과 西南海岸의 牧場」, 『農壇學報』 第94號 別冊, 2002, 5-10쪽 참조.

충격성 때문에 화약이 등장하기 전까지 전장을 주도했으며, 보병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기병의 장점은 전략적으로 기동력을 살린 우회기습에 있으며, 전술적으로는 속도에 걸맞는 타격력을 발휘하여 적진을 동요케 하여 붕괴시키는 것이다.⁴⁷⁾ 삼산정명(杉山正明)은 기마(騎馬)란 단기라도 그 위력이 대단하며, 백기·천기·만기로 동원되어 전개되면 보병부대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다⁴⁸⁾고 한다. 기병의 통일된 돌진은 보병의 대열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열이 흐트러진 보병행대를 상대할 때 기병은 최대의 위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기병의 중요성 때문에 당왕조는 감목장을 설치하여 말의 사육과 관리를 주관하였다.⁴⁹⁾ 마정(馬政)은 고조·대종·고종 3대에 걸쳐 정비되었으나 모두 서북방 일대에 집중해 있었으며,⁵⁰⁾ 기후가 습해 말을 사육하기가 어려웠던 양주일대에는 감목장이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반란군에게는 기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한편 진압군은 이효일(李孝逸)이 양주도대총관(楊州道大總管)이 되어 행군을 이끌고 남하해 왔다. 먼저 행군의 편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를 참조해서 보면, 진압군의 병력은 흑치상지의 예비부대를 제외하고 총 30만명이었으므로 1개 행군수를 대략 2만명으로 상정할 경우 행군의 총수는 15개가 된다. 병종별로는 노수(弩手) 3만명(2,000×15), 弓手 3만3천명(2,200×15), 마군(馬軍) 6만명(4,000×15), 도탕(跳蕩) 4만3천5백명(2,900×15), 기병(騎兵) 4만3천5백명(2,900×15), 치중병(輜重兵) 9만명(6,000×15)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본다면 보병 15만명과 기병

47) 나카자토 유키 저, 이규원 역, 『전쟁 천재들의 전술』, 들녘, 1996, 100-101쪽.

48) 杉山正明 著, 이진복 역, 『유목민이 본 세계사』, 학민사, 1999, 34쪽.

49) 馬俊民·王世平, 『唐代馬政』, 聯合出版, 1984, 42-43쪽 참조.

50) 『唐六典』 卷5, “而監牧六十有五焉, 皆分使而統之. 南使十五監, 西使十六監, 北使七監, 東使九監, 塩州使八監, 嵐州使三監”; 남도영,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6, 38쪽의 표를 참조하면 현재의 복건성 일대인 泉지역을 제외하면 중국의 동남일대는 감목장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1> 唐代 行軍의 兵種과 構成⁵¹⁾

軍 別	戰 兵					輜 重 兵	합 계 (단위:名)
	弩 手	弓 手	馬 軍	跳 蕩	騎 兵		
中 軍	400	400	1,000	500	500	1,200	4,000
左右虞候二軍	300×2	300×2	500×2	400×2	400×2	900×2	5,600
左右廂四軍	250×4	300×4	500×4	400×4	400×4	750×4	10,400
합 계	2,000	2,200	4,000	2,900	2,900	6,000	20,000

6만명 그리고 치중대 9만명 정도로 진압군은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경업의 난은 기병을 주력으로 하는 정규군과 보병을 주력으로 하는 비정규군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토벌군과 반란군의 전투력을 간략히 정리하여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란군은 병력수·기병수·무장정도·훈련상태·예비대보유상황 등 어느 면에서도 우세한 부분이 없다. 단지 공격과 방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통상 3:1비율이기 때문에 병력수에서만 어느 정도 겨루어볼 만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실제 진압군의 행군이 15개가 편성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다. 당시 당의 전투력의

<표 2> 鎮壓軍과 叛亂軍의 戰鬥力 比較

區 分	兵 力	兵 種		所 屬	武 裝	訓 練	士 氣	指 揮 官		其 他
		騎 兵	步 兵					姓 名	職 位	
鎮壓軍	30만명	6만명	24만명	中央軍	전원	양호	·	李孝逸	左玉鈐衛大將軍	黑齒常之
叛亂軍	10만명	미상	10만명	地方軍	미흡	미흡	·	李敬業	(前)眉州刺史	水軍

51) 孫繼民, 『唐代行軍制度研究』, 文津出版社, 1995, 238쪽.

핵심은 유목기병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부족단위로 편성되어 독립부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 행군수는 15개보다 훨씬 못 미쳤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4. 鎮壓軍의 遊牧騎兵 編入

행군은 임시적 성격의 군사조직으로 전쟁의 돌연성과 대규모화로 인해 단시간 내에 많은 병력을 동원해야만 했다.⁵²⁾ 당대 주요 군사체계는 부병제라고 말할 수 있으며, 부병의 조직은 체계적이고 훈련은 엄격했으며 전투력은 비교적 강했다.⁵³⁾ 따라서 행군의 주요 병원은 부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행군은 부병만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여러 종류의 병원을 가지면서 성립된 군사조직이었다.

당대 군부(軍府) 총수가 가장 많았던 때에 전국 약 630부, 685년에서 688년의 정원증가 이전에는 1부 평균 800명으로 총수 약 50만명이다. 그 중에서 수도 상번(上番)이 상시 10만명 가까이 되고, 이를 제외한 남은 부병 중에서 변방군을 차출하는데 5만명 내지 10만명으로 이들은 복무장소에서 이탈할 수 없었다. 이들을 전부 철수시켜 특정지역의 행군으로 투입하는 것은 어려웠다. 따라서 병적상의 병사숫자로 보아도 대규모 행군을 부병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이러한 병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임시로 각 주에 할당하여 주의 부담과 책임하에 징모된 인원이 병모(兵募)였다.⁵⁴⁾

부병과 병모가 행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병원 역할을 했지만, 여기에 보

52) 孫繼民, 앞의 책, 103쪽.

53) 孫繼民, 앞의 책, 172-174쪽.

54) 菊池英夫, 앞의 책, 243-244쪽.

중 병원으로 번병(蕃兵)⁵⁵⁾이 있었다. 번병은 번병모(蕃兵募)와 蕃部落兵(번부락병), 두 가지로 구분되어 행군조직내로 편입되었다. 내천(內遷)한 소수 민족과 내지 각 주에 흩어져 있던 소수 민족이 번병모로 주로 동원되었으며, 번부락병은 비교적 독립성이 강하고 역량이 큰 부락·왕국이 중국에 대해 번속하면서 동원되었다.⁵⁶⁾ 이들이 어떻게 행군에 참여하고 활동하는지 살펴보자.

태종이래의 정복활동으로 인해 수많은 이민족이 중국내지로 편입되었지만, 스스로 원해서 내향한 부락⁵⁷⁾도 상당히 많았다. 태종 정관 13년(639)의 전국 인구총수는 1,235만명이었으며, 이중에 내천(內遷)민족이 전체 6~7%를 차지했다. 고종과 무측천 시기에는 서돌궐·철륵(諸部)·설연타·토욕혼·고려·백제 등 5차례의 이민(移民)이 있었는데 그 수는 7~80만명에 달했으며, 그 외의 다른 천이(遷移)를 다 합한다면 그 수는 100만명에 달했다.⁵⁸⁾

당대의 이민족은 돌궐을 비롯한 북쪽의 유목민 계열이 가장 많았으며, 투항 부락민은 자발적으로 내향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수령들 휘하에 고유한 부족적인 구조도 상당부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⁵⁹⁾ 이들 부락은 사회·정치·경제·군사가 합일된 조직으로 전체 부락민이 병이었다.⁶⁰⁾ 이들 부락병 즉 투항 유목민들은 행군시 전투력의 지원·전술적

55) 蕃이란 漢族이 건립한 中原王朝에 대해서 漢族 외의 소수 민족을 일컫는 말이다(孫繼民, 앞의 책, 111쪽).

56) 孫繼民, 앞의 책, 112-118쪽 참조.

57) 중국대륙은 예부터 자연물산이 풍부하고 기후도 대체로 온난하여 인간생활에 적합했기 때문에 이민족들은 여기에 이주해서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침입해 오기도 했다(宋台鎬, 『唐代 移民族 移住에 관한 一考』, 『安東教育大學 論文集』 4輯, 1971, 153쪽).

58) 李鴻賓, 『唐中期中央集權與民族關係』, 民族出版社, 2003, 63쪽.

59) 金浩東,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第137輯, 1993, 134쪽.

60) 孫繼民, 앞의 책, 113쪽; 부족집단이 유지되려면 토지와 그를 방어할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며, 각 부족내의 건장한 남자는 모두 자력으로 군대조직에 속했을 것이다(특관텐 著, 宋基中 譯, 『遊牧民族帝國史』, 민음사, 1984, 77-78쪽).

조언 등을 했으며,⁶¹⁾ 원정참여가 당에게는 조국토벌(助國討伐)이었지만 부족민에게는 약탈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⁶²⁾ 이렇듯 당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필요성과 기병위주의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부락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변병(蕃兵)과 변장(蕃將)의 역할은 행군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점차 이민족계 변장들이 군사분야에서 핵심이 되어 군사·정치상 비중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⁶³⁾ 나중에는 안록산의 난을 비롯한 변장(蕃將) 중심의 반란으로 인해 당왕조의 존립마저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만큼 당왕조의 유목기병 의존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으로 변병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동원규모에 대해 알아보자.

정관 21년(647) 구자국 정벌시 철록 13주와 돌궐·토번·토욕혼 등의 부병이 동원되었으며, 『冊府元龜(책부원귀)』에 의하면 돌궐병 10여만기⁶⁴⁾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영휘(永徽) 2년(651) 궁월도행군(弓月道行軍)에는 부병 3만명과 회홀(回紇) 5만기가 동원되었으며, 龍朔初(661) 고구려 원정시에는 계필하력이 제번(諸蕃) 35군을 거느리고 출정한 바 있다. 나당전쟁이 치열해지는 672년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명확히 변병 4만명이라고 표기하고 있다.⁶⁵⁾ 한편 이근행은 말갈인으로 가동(家童)은 수천명에 달했다. 즉 변병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명까지 동원되었으며, 대규모 행군 편성시에는 10여만 명까지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은 태종 정관 3년(629)부터 현종시기까지 대외 원정에 매년 적게는 4~5만명, 대개 10만명 전후의 군사를 동원하였고, 고종시기 고구려 원정에는 3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였다.⁶⁶⁾ 조로(調露) 원년(679)

61) 金浩東, 앞의 논문, 158쪽.

62) 金浩東, 앞의 논문, 174쪽.

63) 金奎皓, 「唐朝의 異民族管理와 問題點」, 『江原史學』 第7輯, 1991, 138쪽.

64) 『冊府元龜』 卷985, “發鐵勒十有三部, 突厥侯王十餘萬騎”; 章羣, 『唐代蕃將研究』, 聯經出版事業公司, 1986, 233쪽에서 再引用.

65)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 文武王下 11年 條, “九月, 唐將軍高侃等, 率蕃兵四萬到平壤”.

돌궐 반란 토벌시에도 30만명이 동원되었으며,⁶⁷⁾ 684년 이경업의 난 진압에도 30만명이 동원되었다. 당왕조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병력치는 30만명 전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행군 편성에는 반드시 변병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일반적인 대외원정이 아니라 본토 그것도 경제적 중심지인 양주에 약탈가능성이 있는 변병을 동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무리 반란 진압이 급선무라 하더라도 제국을 경영하는 책임자로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경업의 난은 지방의 일개 난이 아니라 무척천 개인의 안위뿐만 아니라 당왕조 자체의 존립이 걸린 시급한 사안이었고, 병력 수급 과정에서 변병의 동원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병들의 한화(漢化) 가속과 당행군내로의 편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⁶⁸⁾ 약탈 위험성에 대한 조치로 변병을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척천의 신속한 대응은 유목기병을 배제한다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다.⁶⁹⁾ 돌궐은 중앙아시아 원정, 고구려 원정에 동원되었으며, 중국 내부의 반란 진압에도 참여하였다고 한다.⁷⁰⁾ 이렇게 볼 때 이경업의 난 진압시에도 변병들이 동원되어 기병의 역할을 수행했을 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민족의 동원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수만명 정도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6) 菊池英夫, 앞의 책, 241-242쪽.

67) 『新唐書』 卷108, 『裴行儉傳』, “調露元年……率太僕少卿李思文, 營州都督周道務部兵十八萬…總三十餘萬”.

68) 河北 이외의 기타 지역의 蕃將도 중국문화에 동화되어 상당수가 漢化되었으며(章羣, 『唐代蕃將研究』, 聯經出版事業公司, 1986, p. 370), 당의 세력 확대와 더불어 소수민족의 行軍 편입은 증가하였다(孫繼民, 앞의 책, pp. 111-119 참조).

69) 이경업의 난은 9월 말경에 발발하였고, 10월초 경에 진압군이 편성되었는데, 10월 중순에는 이미 대치상황이 전개되었다. 도량산 전투에서 반란군이 산세를 의지하자 진압군은 기병의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하아계 전투시 소효상이 기병 5천명을 이끌었던 점 등을 보면 진압군은 기병을 주력으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70) 勞經原, 『唐折衝府考』, 『二十五史補編』 卷6, pp. 7593-7629; 唐長維, 『唐書』 『兵志箋正』, 北京科學出版社, 1957; 록관텐, 앞의 책, 78쪽에서 再引用.

30만명이라는 진압군의 인원 규모로 볼 때, 대략 10만명⁷¹⁾의 부병과 10여만 명의 모병 그리고 수만의 번병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즉 유목기병 수만명에 부병과 모병으로 이루어진 20여만이 난 진압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유목기병의 동원숫자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경기병 중심의 독립부대로 편성된 유목군대의 대거 참여로 인해, 진압군으로 편성된 행군의 수는 15개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이로써 진압군은 기존의 15개의 행군편성시보다 훨씬 막강한 기동성과 충격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반란군과의 전투력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5. 叛亂軍의 騎兵防禦 戰術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경업의 용병술이 떨어지며,⁷²⁾ 반란군의 사기는 토벌군에 비해 형편없었다고 평한다.⁷³⁾ 하지만 이효일이 지휘하는 토벌군은 도량산과 하아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 유목기병을 주력으로 하는 훈련된 완전무장 진압군을 상대로 반란군이 이처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물러서지 않았던 것은, 반란군의 사기가 높았으며 이경업의 용병술이 뛰어났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다음은 이적과 이경업의 용병술에 관한 일면을 보여준다.

- ① 七年 … 勳領步卒一萬渡淮, 拔其壽陽, 至硤石
 (『舊唐書』卷67「李勣傳」, 武德7年(624)條).

71) 孫繼民, 앞의 책, 83쪽 참조.

72) Richard W. L. Guisso, 'The reigns of the empress Wu, Chung-tsung and Juitsung'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Cambridge Univ press, 1979, 296쪽; 劉曼春·梁恒唐, 『大周女皇武則天』, 山西古籍出版社, 1997, 112쪽.

73) 趙文潤·王雙懷, 앞의 책, 155쪽 참조.

- ② 十五年 … 命勳爲朔州行軍總管, 率輕騎三千追及延陀於青山, 擊大破之(同上, 貞觀15年(641)條).
- ③ 十八年, 太宗將親征高麗, 授勳遼東道行軍大總管, 攻破蓋牟, 遼東, 白崖等數城(同上, 貞觀18年(644)條).
- ④ 總章元年, 命勳爲遼東道行軍總管, 率兵二萬略地至鴨綠水 … 勳又引兵圍平壤(同上, 總章元年(668)條).
- ⑤ 二年, 其年寢疾 … 尋薨, 年七十六(同上, 總章二年(669)條).
- ⑥ 敬業, 少從勳征伐, 有勇名(『新唐書』卷93「李勳傳」).
- ⑦ 歷太僕少卿, 襲英國公, 爲眉州刺史(同上).

①·②·③·④는 이적의 대표적인 전쟁참여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①과 ②에서는 보병과 기병을 운용했던 모습을 알 수 있으며, ③과 ④는 공성전에 대해서도 두각을 드러내었던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적은 전쟁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⑥을 보면 이경업이 이적을 따라 종군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경업이 실제 종군가능했던 시기는 ④시기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⑤를 참조하여 ③을 보면 당시 이적의 나이는 51세에 불과했다. 일찍 손자를 보더라도 너무 어려서 전공을 세우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과 ④사이의 20여 년의 공백이 있는데 이때 이적은 사서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이경업이 이적을 따라 종군하였다면, ④시기인 대고구려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지막으로 ⑦은 이경업이 좌천되기 전까지 역임한 관직명이다. 이를 본다면 확실히 어느 정도 재능이 있었다⁷⁴⁾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경업은 이적을 따라다니며 전투감각을 익혔으며 기병의 위력과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대기병전술에 능했을 것이다. 이경업이 유능한 지휘관이라면 기병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며, 기병 전

74) 趙文潤·王雙懷, 앞의 책, 141쪽.

법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기병의 파괴력은 알고 있었을 게 틀림없다.⁷⁵⁾ 낮은 구릉과 평지가 대부분인 강소성에서는 전투가 평원전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며 기병의 역할이 증대하리라는 것을 알고, 이에 기병의 기동을 제한할 수 있는 도량산과 하야계를 선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경업은 어릴때부터의 중군경험으로 진압군의 공성수준을 충분히 가늠했을 것이다.⁷⁶⁾ 10만명이라는 군사가 양주성을 중심으로 결전을 치르고자 한다면, 진압군의 대군에 포위되어 주체적인 활동을 하기 곤란하며 기병열세로 인해 일반 평원전을 감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보았을 것이다. 이경업은 이중으로 구축된 양주성⁷⁷⁾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하야계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했다.⁷⁸⁾ 해자나 구덩이는 기병의 활동을 제한하며, 공자에 계는 해자나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 엄청난 병력·물자·시간을 강요하기 때문에, 야전 성벽보다는 도시의 성곽이 더 튼튼하며 해자의 깊이도 더 넓고 깊어 지키기도 쉬운 법이다. 그런데 이경업은 왜 야전 축성을 결정했을까. 그것은 방어진지를 구축한 위치를 감안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하야계는 회수(淮水)와 장강 사이에 위치하고, 회수·장강과 나란히 서에서 동으로 흐르다가 고우에 이르면, 대운하와 합류하게 되는 소하천이다.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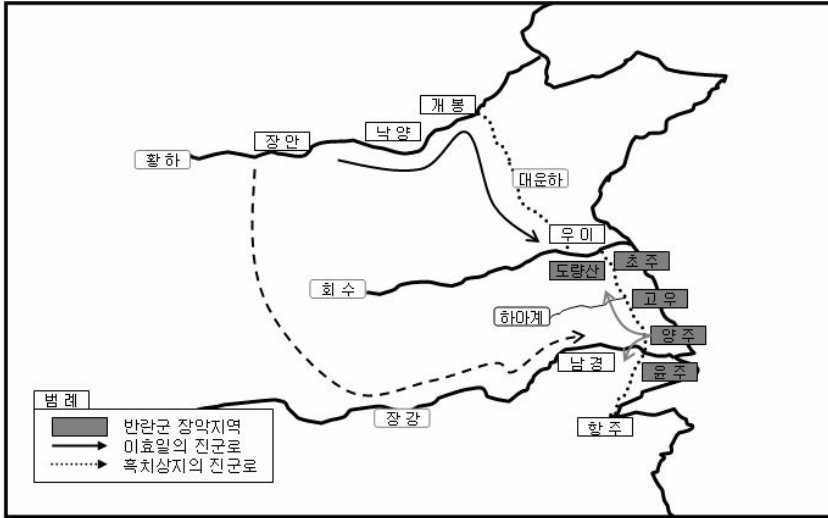
75) 나카자토 유키 著, 이규원 譯, 『전쟁 천재들의 전술』, 들녘, 1996, 86쪽 참조.

76) 공성기술은 이미 전국시대에 거의 완성되었는데 당대부터 포나 투석기가 사용되었으며 송대부터 화기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외에 土山을 쌓거나 물의 힘으로 성벽을 무수기도 했고, 성벽 밑으로 굴을 파서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지하도를 파서 성내로 진입하기도 했다(篠田耕一 著, 신동기 譯, 『무기와 방어구』, 들녘, 1992, 200-203쪽). 당시 공성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7) 당대의 楊州城이 최대로 번성할 당시에는 남북이 15里 110步(약 6km), 동서 7里 3步(약 2.8km)였으며, 성의 성벽은 2중으로 되어 있었다(董監泓 編著, 成周鐸 譯註, 『中國都城發達史』, 學研文化社, 1993, 80쪽 참조).

78) 당시 일반적인 야전 성벽의 높이는 약 1.5m, 밑변은 0.75m, 윗변은 0.375m이며(中國軍事史編寫組 編, 『中國軍事史』 第六卷 兵壘, 解放軍出版社, 1991, 181쪽), 벽의 각도는 대략 70°정도로 구축되었다(李允和 著, 이상해외 譯, 『중국 고전건축의 원리』, 시공사, 2000, 389쪽). 해자에 해당하는 구덩이가 그와 같은 크기로 앞쪽에 굴토되므로 야전 성벽의 높이는 3m 정도가 된다.

[그림 1] 李敬業의 亂 要圖



도보 도하는 거의 불가능하며 도하장비를 사용해야만 건널 수 있었다. 도하작전의 특성은 특수장비와 병력이 소요되고 지휘통제가 곤란해지며, 방책이 제한되고 최초계획의 변경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⁸⁰⁾ 나·당전쟁시 당군의 요하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요하를 따라 천리장성이 축조된 것⁸¹⁾처럼 이경엽도 유목기병을 중심으로 편성된 진압군의 기병을 막기 위해 하아계를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병을 상대로 할 때는 말의 기동력을 없애거나 혹은 그 기동력을 피하

79) 中國社會科學院, 『中國歷史地圖冊』第五冊(唐·宋時期), 中國地圖出版社, 1980, 참조; 현재는 高郵湖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지만, 당시에는 고우호가 생성되지 않았고 하아계만 흐르고 있었다. 하천의 길이는 약 110km 내외이며 우리나라의 영산강(116km)과 비슷한 수계를 가지고 있다.

80) 金光石 編, 『用兵述語研究』, 兵學社, 1998, 194쪽.

81) 余昊奎는 千里長城 축조위치가 遼河일대라고 추정하며, 이는 고구려가 기동성을 보유한 기병중심의 당군을 저지하기 위해 평원전술을 도입하여 요하방어선을 구축하려 했다고 보았다(余昊奎, 『高句麗 千里長城의 徑路와 築成背景』, 『國史館論叢』 第91輯, 2000, 184쪽).

면서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공격병기를 이용해야 한다.⁸²⁾ 이에 이경업은 기병의 기동력을 없앨 수 있는 하천을 선정하여 도하를 강요하고, 방어진지 앞의 구덩이로 2·3중의 장애물⁸³⁾을 구축하여 반란군의 심리적 안정효과를 노리면서, 장거리 무기 즉 노(弩)를 제작하여⁸⁴⁾ 방어에 나섰다. 이러한 이경업의 전략은 “전투력이 현저히 우세한 적에 대항하여 방자는 난공불락의 진지를 이용하여 적 공격으로부터 전투력을 방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⁸⁵⁾라고 한 클라우제비츠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분명 하아계 방어선은 진압군을 여러 차례 막아내며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지만, 한편으로 이경업은 하아계 방어선 자체를 너무 과신한 점도 없잖아 있었다. 클라우제비츠는 하천 방어는 적의 모든 타격을 성공적으로 견뎌 내거나 아니면 방어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실패해야만 끝이 나며, 하천 방어시 한 지점이 돌파되었다면 산악에서처럼 중심상의 잔류저항이 이루어질 수 없어 단 한번의 작전으로 방어는 종료된다고 하였다.⁸⁶⁾ 하아계가 위치한 고우일대는 해발 2m 이하의 낮은 평원지대로⁸⁷⁾ 하아계에서 패한 이후 반란군은 다시는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고 완전 와해되어 버렸다. 반란군으로서는 기병중심의 진압군을 평원전으로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으며, 하아계 방어선이 최적의 방어선이자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것이다.

82) 나카자토 유키, 앞의 책, 104쪽.

83) 障碍物은 攻者에게는 기동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고, 병력을 분산시키기도 하고 한곳으로 집중을 강요하기도 한다. 반대로 防者에게는 이를 잘 활용한다면 병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적을 아군이 요구하는 곳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李忠珍, 『軍事作戰에 있어서 地形의 影響』, 『學藝誌』 3輯, 1993, 177쪽).

84) 『資治通鑑』 卷203, 垂拱二年 三月條, “敬業作刀車及弩”.

85)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류제승, 『전쟁론』, 책세상, 1998, 296쪽.

86)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앞의 책, 307쪽.

87) 對外經濟政策研究員地域情報센터, 『江蘇省 便覽』, 오름시스템(주), 1996, 35-36쪽 참조.

6. 叛亂軍의 兵站線 攻擊

실제 전투가 벌어지자 일단 도량산에서 고전을 한 이효일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진군을 주저하게 된다. 위원충의 건의로 다시 도량산을 공략하고 이어 초주(楚州)의 이경유(李慶猷)를 격퇴시킨다. 다시 남하한 이효일은 하아계에서 수차례 실패하자 퇴각을 고려하게 된다. 이를 조문윤은 이효일이 담이 작고 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았지만,⁸⁸⁾ 반란군을 두려웠다기 보다는 병참문제로 인한 사기저하를 고려한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략을 통한 전투력의 집중은 피아의 상대적 전투력 크기에서 전체적으로 아군이 열세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시기와 장소에는 상대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⁸⁹⁾ 즉 집중과 분산이라는 전략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경업은 분명히 실패했다. 반란군은 원래 병력이 적는데다 윤주·도량산·초주에 분산되어 주둔했기 때문에 세력이 더욱 약하게 되었으며, 이에 반해 진압군은 우이와 도량산 일대에 집중배치되어 도량산을 포위하고 분할 견제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집중 공격에 절대 우세했다.⁹⁰⁾ 반란군은 병력을 분산배치함으로써 전투력 집중을 할 수 없었고, 각 거점간 거리가 40km 이상 떨어져 있어 상호 지원이나 연계는 쉽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진압군의 공세에 반란군이 고립되어 도량산에 이어 초주까지 격파당했지만, 이경업은 결국 구원군을 보내지 않았다. 진압군이 도량산과 초주를 공격할 때 구원군을 보내 협공할 기회도 분명 있었을 텐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경업이 구원군을 보내지 않고 단기결전을 회피한 사실은 진압군의 병참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진압군의 예봉을 꺾으며 시간을 벌기 위한

88) 趙文潤·王雙懷, 앞의 책, 155-157쪽 참조.

89) 河大惠, 『軍事戰略學』, 을지서적, 1998, 174쪽.

90) 趙文潤·王雙懷, 앞의 책, 155쪽.

하나의 방어전략의 일환이었을 지도 모른다. 하이계의 이경업을 공략한 후 잔당을 소탕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양주·초주·윤주 세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⁹¹⁾ 이는 도량산과 초주에서 패한 잔당들이 그 일대에 남아 진압군의 병참선을 위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리델 하트는 병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보급을 위한 병참선에 덜 의존하게 되지만, 군대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조직이 복잡해질수록 병참선에 대한 위협은 더욱 즉각적이고 심각해진다고 하였다.⁹²⁾ 그렇다면 30만명에 달하는 진압군이 처한 병참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진압군 개인 병사는 하루에 미(米) 기준 2승(升)을 소비하고, 1개 행군(2승×20,000)의 병사는 400석(石)의 미(米)를 소비한다. 말은 하루에 초료(草料) 1석(石)을 소비하므로 1개 행군의 말(태마(馱馬) 12,000필·전마(戰馬) 4,000필·관마(官馬) 100필)은 16,100석의 초료(草料)를 소비한다.⁹³⁾ 따라서 1개 행군의 1일 식량소비량은 16,500석이 된다. 진압군의 행군수를 15개(30만명)로 보았을 경우 하루 평균 247,500석(16,500석×15)의 식량을 소비하게 되는 셈이다. 병참선의 적재량을 최대 1,000석으로 보았을 때,⁹⁴⁾ 1일 분량의 군량 운송에 필요한 최소 병참선수는 약 248척에 달하며, 1개월 분량의 군량운송을 위해서는 병참선 7,440척이 동원되어야 한다. 또한 상당수의 병력과 전마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난은 약 3개월간 지속되었고, 일반 행군이 아니라 기병위주의 유목군대는 더 많은 말을 보유했으며, 여기에 공성장비·도하장비를 비롯한

91) 『資治通鑑』卷203, 光宅元年 十一月條, “楊潤楚三州平”.

92) 바실 헨리 리델 하트 著, 주은식 譯, 『전략론』, 책세상, 1999, 461쪽.

93) 孫繼民, 앞의 책, 320-331쪽 참조.

94) 南宋 咸淳 7년(1271) 무렵에 침몰된 泉州灣 海船의 全長이 34.55m이며 적재량이 200t(3,600석)인 점과 高麗의 사신으로 내왕한 宋의 徐兢이 저술한 『高麗圖經』에 客舟는 길이 10여丈, 2,000石을 실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있는 점(金在瑾, 『배의 歷史』, 正字社, 1993, 101쪽) 그리고 『貞觀政要』에 한 척의 군량수송선의 적재량이 수백석이라고 한 점(吳兢 著, 김원중 譯, 『貞觀政要』, 흥익출판사, 1998, 424쪽) 등을 감안해 보면, 唐代 內陸을 운항하던 平底船의 적재량은 1,000石 이하였을 것이다.

공구류와 각종 무구류(武具類)를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병참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한편 하아계 전투가 일어나는 시점은 11월이므로 현지 식량 조달이나 전마의 초료 공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경업은 장강 남안의 윤주를 장악함으로써 측·후방으로 기동하는 흑치상지의 예비부대⁹⁵⁾의 위협을 감소시킨 후, 도량산과 초주를 연하여 1차 회수 방어선을 구축하고, 결전을 대비해 하아계 연안에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하아계에서 진압군의 선봉부대를 격파하고 난 후 진압군이 우이로 퇴각하리라 여기고 주력을 후방으로 배치시켰다가⁹⁶⁾ 결국 진압군의 화공(火攻)으로 인해 하아계 방어선이 무너지게 된다.⁹⁷⁾ 결과적으로는 30만명의 대군에 패해 수뇌부가 도주 중 부하 왕나상(王那相)에게 살해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무모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병력절약은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하기 위해 가용한 전투력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이다.⁹⁸⁾ 유목기병을 주력으로 하는 30만명이라는 대군에 맞서 이경업이 접근로 2곳⁹⁹⁾에 소수의 병력을 배치하여 진압군의 진군속도를 떨어뜨려 적의 병참을 위협하는 동시에 주력부대로는 하아계에서 결전을 대비시킨 점은 유효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95) 黑齒常之가 이끄는 군사를 江南兵이라고 부르고 있으며(『新唐書』卷93, 「李勣傳」, “武后又使黑齒常之將江南兵爲孝逸援”), 측면공격을 시도하려는 점(馬馳, 「黑齒常之事迹考辨」, 『武則天與偃師』, 歷史教學社, 1997, 29쪽)과 李敬業이 江南兵을 대비해 병력을 남쪽으로 이동시킨 점(本文 아래 각주 참조) 등으로 볼 때, 黑齒常之는 아마 長江을 타고 東進하면서 병력을 수합하여 제2전선을 구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96) C. P. Fitzgerald, *The Empress Wu*, The Cresset Press, London 1968, 105쪽 참조.

97) 『新唐書』卷93, 「李勣傳」, “孝逸乘風縱火逼其軍, 軍稍却”.

98) 金光石, 앞의 책, 248쪽 참조.

99) 盱眙에서 楊州로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다. 盱眙에서 淮水를 거쳐 대운하를 타고 楊州로 들어오는 水路와 盱眙에서 육상으로 곧바로 楊州로 향하는 陸路가 있었는데, 수로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楚州를 지나야 하며 육로를 이용할 경우는 都梁山을 거쳐야만 했다.

7. 맺 음 말

이경업의 난이 일어난 684년은 당중기¹⁰⁰⁾ 통치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외부적으로는 초당기 확대된 기미정책의 이완으로 인한 이민족의 반란과 침입이 이어졌고, 내부적으로는 청정무위(淸淨無爲) 정책의 폐단으로 이치(吏治)의 이완과 잦은 원정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진행되었으며,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 재정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황족과 귀족들이 좌천되거나 파면되는 등 통치 지배세력의 전환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혼란함 속에서 민심동요의 신호는 이미 683년 白鐵余(백철여)의 난¹⁰¹⁾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경업은 권력에서 배제된 구 관료세력과 민심이반이 극심했던 강남인들을 규합하여 최대의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이경업은 분명 실패했다. 양주거병 후 북진하지 않고 남진하려 함으로써 중중북위라는 대의명분을 상실했으며, 숙부인 이사문도 거병에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부하의 손에 살해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하지만 반란 과정 속에 나타난 이경업은 그리 경솔하지 않았고 그리 무능력하지도 않았다. 유목기병이 주력이 된 대규모 진압군에 맞서 대기병 방어전략을 구사하였고, 그 일환으로 하아계를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했으며, 진압군의 병참상황을 꿰뚫어보고 속전속결을 회피하며 장기전으로 이끌고자 했다. 반란군이 단기결전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장기 방어전략을 수행하였던 것은 당시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란군은 모자라는 전력을 지형과 대기병부대의 적절한 운용으로 충당하였으며, 특히 30

100) 礪波護 著, 任大熙 譯, 『당중기의 정치와 사회』, 『세미나 수당오대史』, 서경, 2005, 265쪽 참조.

101) 白鐵余는 불교신도를 수년간 모집한 후 스스로 光明聖皇帝라고 칭하며, 唐朝에 반기를 들었다(『資治通鑑』 卷203, 弘道元年(683) 四月條, “自稱光明聖皇帝, 置百官”).

만명이라는 대군의 위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점으로 볼 때 무형 전력인 정신전력도 아주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반란군은,

- ① 무측천이 반란군의 격문을 보고 놀라지 않은 점(이사문이 거병소식을 미리 알린 점)
- ② 반란군이 수도의 정황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있었던 점
- ③ 수도경비 상시 인원이 10만명, 동원가능한 수도일대의 부병(府兵)이 80%라는 점
- ④ 산동지역의 소요나 반란의 기미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
- ⑤ 병참 수송의 애로점(운하 이용의 어려움)
- ⑥ 기병의 절대부족으로 화북에서의 평원전 수행이 불가능한 점
- ⑦ 반란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강남인들의 분열할거적인 성향

등의 이유로 대의명분을 얻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복진을 포기하고, 남진할거를 선택했다. 682년 돌궐 제2제국의 부활과 토번의 침입 등 주변 이민족의 위협이 상존한 상태에서 그들의 대규모 침입이 이루어졌다면 수도 경비를 위해 대부분의 진압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외 정세와 당시 민심이반이 이루어지던 강남의 분열할거적인 성향을 적절히 이용하려 했던 이들은 아주 치밀하고 현실적인 집단이었다. 이렇듯 만만치 않았던 이경업의 반란을 조기진압한 무측천도 상당한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06. 2. 3, 심사완료일 : 2006. 3. 9)

주제어 : 이경업, 강남할거, 유목기병, 기병방어전술, 무측천

<ABSTRACT>

Dang under Ruling of Empress *Wu*(武則天), Development and
Military Activities of Rebellion of *Li Jing-ye*(李敬業)

Yi, Sang-hun

In 683, *Dang* Dynasty experienced disorder caused by death of *Emperor Kao-zong*(高宗), dethronement of weak *Emperor Zhong-zong*(中宗), continuing natural disaster and invasions by the outside. Under these circumstances, *Li Jing-ye* mobilized relegated former government officials's power and brought about rebellion for cause to restore *Emperor Zhong-zong* in *Yang-zhou*(揚州), which was the economic center at that time in 684.

The rebel army mobilized as many as 100,000 troops of massive power after 10 days and occupied most of the area, called *Jiang-su Sheng*(江蘇省) now. However, they intended to hold their own ground not marching north but marching south. If they had marched north, they could have extended their power by finding the just cause to restore *Emperor Zhong-zong* and connection with *Shan-dong*(山東) power having anti-*Tang* sentiment. Their failure to march north is mainly considered the reason to have failed the rebellion. However, their situations where they couldn't march north have not been considered. It is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to reveal the reason why they intended to maintain their independence going south instead of going north.

For the above-mentioned purpose, difference in fighting strength between repressive military and rebel army at that time was compared and the development of nomadic cavalymen participating in the war in order to

recruit insufficient strength of riot military and rebel army's respond to that were examined. Participation of nomadic cavalrymen who were superior in cavalry strategy caused fighting power to change and rebel army to adopt strategy for defending cavalry. In addition, rebel army penetrated that 300,000 soldiers of repressive military had difficulty in getting impedimenta and intended to perform prolonged war.

Considering the above facts, rebel army was absolutely short of cavalry, had difficulty in supplying impedimenta, and couldn't connect with Shan-Dong power. Moreover, the rebellion plan was revealed early and people in the southern side of a river(江南) tended to separately hold their own ground. That's why the rebel army gave up marching north and intended to maintain their independence in the southern side of river. It is regarded as a realistic judgement under the circumstances.

Study of the development of rebellion, on the one hand, enables to know that *Li Jing-ye's* tactics were superior contrary existing cognition and that Empress *Wu's* respond was very appropriate that she committed another reserved division to the battle while suppressing the rebel army with repressive military of 300,000 troops.

Key Words : *Li Jing-ye*, Holding their own ground in the southern side of river, Nomadic Cavalry, Strategy for defending cavalry, Empress *Wu*